

German-Polish Historical Conflict over German Evacuation and Memory of Deportees

Unsuik Han (Fellow, Tübingen Center for Korean Studies)

ABSTRACT

We have seen that the debate over German historical memory of the deportees cannot be fully understood without placing Nazi Germany's occupation of Poland from 1939 to 1945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German-Polish relations. Hitler ordered the extermination of Polish intellectuals so that the enslaved Polish people would serve the German people as masters. In addition to those killed in the resistance movement, hundreds of thousands of intellectuals were murdered in accordance with this extermination plan, as a preventive measure to stop resistance, or in retaliation. Of course, these sufferings and humiliations endured by the Poles throughout the Nazi occupation do not justify their reprisals against the German deportees. However, it seems that a detailed awareness and empathy for the history that preceded the deportation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ong Polish resistance to attempts to equate the suffering of German deportees with that of Nazi victims.

The debate over whether Germans had a right to feel as victims of the war was sharply contested on both sides of the Oder-Neisse, and strong criticisms were made of the “Holocaustification” of the deportation discourse in Germany, i.e., the attempt to treat the sacrifices of German deportees as equivalent to those of Nazi victims. German deportation discourse suffers from a problem of selective memory. The focus is on narrating the hardships of the deportees during the deportation process, with little attention paid to the preceding history of the deportation and the difficulties of integration into German society after the deportation. While the brutality of the Nazi occupation policy is recognized as the cause of the deportees' suffering, little attention is paid to the suffering of Poles and Czechs.

The new deportation discourse in Germany and the commemoration of the deportees could undermine or even destroy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that Germany has built with Poland over the past decades, so an international historical dialogue is needed to discuss and explain this issue in depth. Fortunately, historians took distance from this conflict and have long experience and trust in German-Polish historical dialogues that do not narrowly interpret deportations in an ethnocentric framework, so they will have to come up with new solutions and strengthen their political voice to resolve the conflict.

독일인 추방과 추방자 기억에 대한 독일-폴란드 역사 갈등

독일인 추방자의 역사적 기억을 관한 논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점령을 독일-폴란드 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히틀러는 노예가 된 폴란드 국민이 독일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 폴란드 지식인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했다. 저항 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 외에도 수십만 명의 지식인이 이 근절 계획에 따라 저항 운동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살해당했고 또는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살해당했다. 물론 나치 점

령 기간 동안 폴란드인들이 겪은 고통과 굴욕이 독일 추방자들에 대한 보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일인 추방자들의 고통을 나치 희생자들의 고통과 동일시하려는 시도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강력한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방 이전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인식과 공감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인이 전쟁의 피해자로 느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데르-나이세(the Oder-Neisse) 경계 양측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독일에서는 추방 담론의 '홀로코스트화', 즉 독일 추방자의 희생을 나치 희생자의 희생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독일의 추방 담론은 선택적 기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추방 과정에서 추방자들이 겪은 고난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방의 이전 역사와 추방 후 독일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치 점령 정책의 잔인성이 독일인 추방자들이 고통을 겪은 원인으로 인식되지만, 폴란드인과 체코인의 고통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독일의 새로운 추방 담론과 추방자에 대한 추모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이 폴란드와 쌓아온 역사적 화해를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설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역사 대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역사학자들은 이 갈등에서 거리를 두고 있고 추방을 민족 중심적인 틀에서 좁게 해석하지 않는 독일-폴란드 역사 대화에 대한 오랜 경험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